

최근 환경·안전·건강 분야의 문제가 증가하고 있지만, 문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구조 개선으로 사회 역량이 모아지기 보다는 분쟁과 갈등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 사회적 비용은 막대한 수준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재)숲과나눔은 문제해결형 인재와 시민 활동을 양성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숲과나눔은 2022년부터 Impact Foundation Learning Community에 참여하며 같이 또 자체적으로 사업별 임팩트 측정과 평가를 이어가며 재단 전체 사업을 조망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일을 부지런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석·박사 장학생 지원사업 평가에 이어 올해는 시민아이디어 지원사업의 첫 단계인 <풀씨>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풀씨>는 환경·안전·보건 분야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가진 누구나 도전하고 실험하여 검증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시민 아이디어 지원사업>의 첫 단계 사업입니다. 지난 5년간 1기부터 10기까지 430팀을 지원했으며,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도 최소화하고 서로에게 배움과 지지기반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네트워킹을 장려했습니다. <풀씨>가 참여자들에게는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임팩트 측정과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든든한 학습 공동체이며 우리 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동료 재단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재)숲과나눔도 자랑스러운 일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숲과나눔  
장재연 이사장

# 03.

## (재)숲과나눔 : 시민아이디어 지원사업 풀씨

### Purpose 우리가 임팩트 측정을 하는 이유

### (재)숲과나눔 소개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 생명과학, 정보통신 등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점 더 인간이 통제하기 어려운 복잡한 환경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 이는 미래 예측을 점점 더 어렵게 하고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도 더 복잡해짐을 의미한다. 이럴 때일수록 더 중요해지는 것은 사람이다. 문제 해결 능력과 사회를 끌고 나갈 리더십을 갖춘 인재 육성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사회의 급격한 변화가 있을 때마다 가장 취약하고 위협받는 것이 환경·안전·보건 분야다. 환경·안전·보건은 시민들의 감수성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국가와 사회의 도덕성·공공성에도 직결되는 문제다.

최근 가정, 일터, 그리고 지역사회 환경에서 다양한 환경·안전·보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구조의 개선으로 사회 역량이 모아지기 보다는 분쟁과 갈등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그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막대한 수준으로 커지고 있다.

환경·안전·보건은 매우 중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우수 인력과 자원이 크게 부족하고, 그로 인해 우리 사회의 전문성과 문제 해결 역량이 매우 취약하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환경·안전·보건 분야의 난제를 해결할 인재를 양성하고, 합리적인 대안과 담론을 개발할 수 있는 사회적 역량을 갖춰야 한다. 또한 다양한 이해집단이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게 만드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재단법인 숲과나눔은 이러한 여망을 모아 2018년 7월 창립되었다.

## 사업 소개

(재)숲과나눔의 사업은 크게 인재양성, 대안개발, 협력사업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인재양성 사업은 공공성과 과학성을 기반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인재’를 양성해 그들이 서로 돕고 협력하며 어우러지는 “인재의 숲”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을 지향하며, 잠재력이 있는 청년들과 젊은 학자들을 발굴하고, 재정적 지원과 함께 멘토링, 연구과제 수행 등의 기회를 제공하며, 워크숍과 캠프, 학술 행사 등을 통한 상호 교류와 네트워크 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대안개발 분야는 환경·안전·보건 분야의 난제를 해결할 대안과 담론의 개발 및 확산을 위한 사업이다. 단계별 시민아이디어 지원사업을 통해 문제 해결 방법을 발굴하고, 검증된 아이디어를 사업화·정책화하여 실질적인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대안과 담론의 개발 및 확산을 위한 과제별 포럼 조직, 소규모 연구모임 지원, 환경학술포럼 등을 통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을 돕고 있다. (재)숲과나눔은 이들이 모여 만드는 논의의 장을 ‘그린 아고라’라 부르고 있다. 또한 2022년에는 그간 도출된 주요 과제를 사회 의제화하고,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해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풀씨행동연구소를 설립하였다.

협력사업 분야는 환경·안전·보건 분야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지역사회 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와 협력을 추진하며, 시민들의 인식 향상을 위한 정보·교육·문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민간 최초의 산업안전공익센터인 일환경건강센터의 설립과 운영(2023년 6월 별도 법인으로 설립됨), 흩어진 환경 자료와 사진을 체계적으로 모아 제공하는 아카이브 구축, 시민 인식 향상을 위한 주제별 환경사 진전 개최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런 다양한 노력을 통해 (재)숲과나눔은 환경·안전·보건 분야의 문제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과 활성화, 그리고 이들이 만드는 건강한 지식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

### 임팩트 측정 배경 & 측정대상 및 범위와 선정 이유

(재)숲과나눔은 지난 2022년부터 Impact Foundation Learning Community에 함께하며 임팩트 측정·평가를 통해 재무적, 정량적 평가를 넘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가치를 평가해 오고 있다. 당시 <석박사 장학지원사업>의 임팩트 측정과 평가를 통해 (재)숲과나눔이 지향하는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인재가 양성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며, 이때의 학습과 경험을 통해 '조선일보 더 나은미래'와 진행하고 있는 비영리 환경분야 청년인재 양성 사업인 <풀씨아카데미>의 임팩트 측정과 평가를 직접 진행해 보기도 하였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진행한 <미래 세대를 위한 더 나은 환경 프로젝트\_초록열매>의 성과를 (주)한국사회가치

평가의 자문으로 진행해 보기도 하였다. 이런 과정은 개별 사업이 목적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가치가 어떻게 창출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재)숲과나눔 전체 사업을 조망해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다.

2023년 임팩트 측정, 평가사업은 대안개발 사업의 근간이 되고 있는 <시민아이디어 지원사업\_풀씨>(이하 풀씨)로 선정하였다. 최근 우리 사회의 문제는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원인과 해결의 주체 또한 기존의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으며 역할 규정도 달라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의 주체가 되던 시민사회 또한 비영리법인과 단체 중심에서 개인·모임·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셜 벤처 등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재)숲과나눔은 환경·안전·보건 분야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실제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시민아이디어 지원사업>을 3단계로 구성하여 지원하고 있다.

풀씨 단계는 문제를 정의하고 해법의 아이디어를 가진 누구나 실험해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에 알맞게 행정절차를 최소화하고 성공과 실패라는 결과가 아닌 실험과 검증의 과정으로 설정하여 도전의 문턱을 낮췄다. 풀꽃 단계는 풀씨로 실험해 본 아이디어의 사업화, 정책화, 제도화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여 지원한다. 풀꽃 또한 그에 맞는 지원 규모와 기간 그리고 적절한 행정을 정하였으며, 풀꽃팀마다 특성과 상황에 맞게 멘토링, 홍보, 역량강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 풀숲 단계는 풀꽃으로 발전된 주제 중 전국 규모로 확장하여 실제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로 (재)숲과나눔 사무처와 협업의 구조로 진행하게 된다.

(재)숲과나눔은 이번 임팩트 측정과 평가를 통해 풀씨가 우리 사회의 문제 해결 의지를 가진 누구나 문제를 정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으로 나서게 하는 시작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이는 단계별 지원사업의 기초를 측정 평가하는 일로, 향후 다음 단계 사업의 측정 평가에도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 <숲과나눔 단계별 시민아이디어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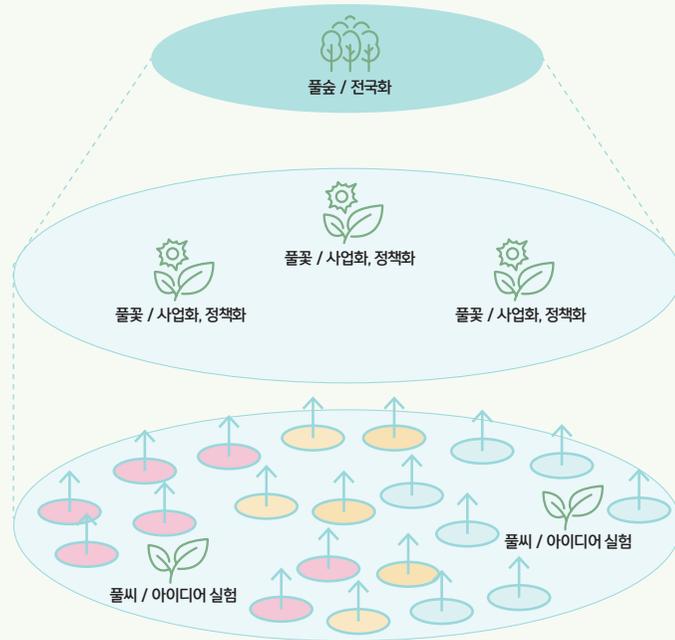


## Our Impact 임팩트 정의하기

풀씨의 임팩트를 정의하기 위해 사업의 기획부터 실행까지 지난 5년간을 돌아보았다. 이 과정에서 사업의 목표로 정한 의도한 변화와 함께 사업 진행 과정에서 생겨난 비의도된 임팩트를 모아보는 ‘임팩트 브리콜라주(Impact Bricolage)<sup>1)</sup>’ 작업을 거쳤다. 이를 바탕으로 ‘임팩트 프레임워크’를 통해 풀씨의 임팩트를 정의하고자 하였다.

풀씨는 다양한 시민들이 환경·안전·보건 분야의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개발하고 역량을 키우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사업이자, 첫 진입 관문이다. 개인 및 소규모 모임(Individual & Small Gathering), 기관 등 단체 유무,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험해 볼 수 있으며 행정 또한 최소화하여 쉽게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서로에게 배움과 지지기반이 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장려하며, 이를 통해 시민의 역량 강화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시민운동 확장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다.

### <환경·안전·보건 분야 문제 해결(대안개발) 시스템>



다양한 사회구성원 참여 / 느슨한 협력 공동체

임팩트 정의와 함께 전체 사업을 변화이론에 맞춰 임팩트 프레임워크를 구성해 보았다. 투입자원(Input)으로는 지원금 300만원과 네트워킹 프로그램 및 결과 공유회가 있다. 경험 부재 등 참가자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행정적 지원과 신뢰 기반의 현장 방문(멘토링 등) 운영을 통해 참

가자가 목표한 활동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기존에 제출한 결과 보고서들을 아카이빙하여 유사한 아이디어를 가진 참가자들이 검색, 참고할 수 있도록 한 점 역시 투입자원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사업은 단계별 아이디어 지원사업의 첫 사업으로 풀씨 다음 단계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할 동기를 부여한다. 또한 해당 사업의 타당성과 함께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관문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활동을 통해 바로 산출(Output)되는 것은 환경·안전·보건 문제 해결에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실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직접적인 참여자가 증가하는 것도 성과로 볼 수 있다. 기수를 거듭하며 참여팀의 양적 확대 외에도 시기별로 다층적인 결과(Outcome)들이 나올 것을 기대했다. 즉, 결과의 실패 유무를 따지지 않고 소규모 아이디어의 실험 기회를 제공한다면 자연스럽게 그중 일부가 다음 단계 지원사업 또는 스타트업 규모의 사업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했다.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통한 상호 학습 기회 제공 및 정서적 지지를 통해 풀씨 간의 연결을 도모하여 풀씨 생태계(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체 형성)와 지역별·주제별 새로운 운동 세력이 등장할 것이라 기대한 것이다.

풀씨는 참여자를 통해 창출되는 임팩트 외에 시민사회 지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있었다. 풀씨는 지원사업이 지원기관 중심에서 참여자 중심으로 기획되어 신뢰 기반으로 운영하는 일이 가능한지에 대한 사회적 실험이었으며, 이는 지원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모든 임팩트를 하나로 묶어 우리는 풀씨의 최종 임팩트를 ‘개인과 소규모 단체의 환경·안전·보건 분야의 실험적인 아이디어 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새로운 시민운동 확대’로 정의하였다.

1)

브리콜라주란 경영학 분야에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존의 자원 및 보유자원을 새로운 관점에서 재배열하거나 재조합하여 사업에 적용하는 역량으로 사용되어 온 개념이다. 브리콜라주는 새로운 문제 해결 및 기회 추구를 위해 평범한 자원을 창의적으로 조합 및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임팩트 측정에서는 임팩트 브리콜라주를 통해 사업의 기존 환경·자원·이해관계자를 폭넓게 검토함으로써, 보다 핵심적으로 임팩트 범주를 정의하고 이에 요구되는 요건들을 재정의하고자 하였다.

<술과나눔 시민아이디어지원사업 풀씨 임팩트 프레임워크>

**Impact (사회적 성과)** 개인과 소규모 단체의 환경·안전·보건 분야의 실험적인 아이디어 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새로운 시민운동 확대

	마일스톤	목표	내용
Outcome (결과)	장기결과	세력화, 영역화	- 지역별, 주제별 새로운 시민운동 확대 (자원순환, 생물다양성, 기후위기 등)
	중기결과	아이디어의 정책화, 사업화	- 풀씨 결과를 바탕으로 2단계 사업 지원·실행 - 풀씨 재지원 및 개발 활동 지속을 통한 참여자들의 활동 성숙
	단기결과	아이디어 발굴 및 참여자 역량 강화	- 3개월 활동을 통해 문제 정의 및 대안 발굴 시민 역량 강화
Output (산출)		참여자의 양적 확대	- 시민들에게 사회문제 해결에 도전하는 기회 제공 (등록하지 않은 개인, 모임 65.5%) - 창의적인 아이디어 실험

Activities (활동)	결과 및 정산보고 (1개월)	- 활동별 결과보고서 작성 및 아카이빙 - 결과공유회 (팀 활동 소개, 소모임 교류, 차기 사업 소개)	사업 만족도 (4.9/5점)
	활동 진행 (3개월)	- 활동별 결과보고서 작성 및 아카이빙 - 결과공유회 (팀 활동 소개, 소모임 교류, 차기 사업 소개)	활동 완수 (371팀, 1550명)
	선발 및 OT (1개월)	- 서류 심사 (기준 : 참신성 30, 실현가능성 30, 확장성 20, 사회적가치 20) - 선발 및 오리엔테이션 진행	기수별 최대 50팀 선발 (총 375팀)
	사업 접수 (1개월)	- 환경, 안전, 보건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인 활동 공모 - 전국의 개인 및 단체, 누구나, 활동 형태 무관 - 관련 분야 자료 아카이브 및 사업 결과보고서 검토 제언	1,640팀 지원 (경쟁률 4.4:1)

Input (투입)	프로젝트 지원금 300만원	네트워킹 프로그램 2회, 결과공유회	행정 지원	현장방문 (멘토링 및 홍보)	결과보고서 아카이빙
------------	----------------	---------------------	-------	-----------------	------------

Impact Measurement  
임팩트 측정하기

앞서 정의한 임팩트를 측정하기 위해 아래 표와 같이 '다양한 시민들의 활동 장려 및 사회혁신가 역량 강화', '활동의 지속 및 확대',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형성 및 시민사회 지원 생태계 촉진'이라는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영역별 측정 지표 및 방법을 도출하였다.

<풀씨의 영역별 임팩트/지표 및 측정방법>

측정할 임팩트 내용 및 영역		측정 방법	
개인과 소규모 단체의 환경·안전·보건 분야의 실험적인 아이디어 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새로운 시민운동 확대	다양한 시민들의 활동 장려 및 사회혁신가 역량 강화	참여자 확대	A. 사업 기초 데이터 활용
		활동의 시작 촉진 및 동기부여 활동의 실효성 확보 환경·안전·보건 분야 사회혁신가 역량 강화	B. 설문조사 - 설문대상 : 풀씨 1기-9기(2018-2022) 371팀 팀장 - 설문 기간 : 2023. 8. 1(화)~18(금)까지 총 18일간 - 설문 방법 : 온라인을 통한 설문 조사
	활동의 지속 및 확대	활동의 지속성 활동의 확대성 네트워킹 형성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형성 및 시민사회 지원 생태계 촉진	시민사회 지원 생태계 영향	C. 심층 인터뷰 - 대상 : 시민사회 지원분야 리더 (팀장급 이상) 9명 - 기간 : 2023. 8.24(화) ~9.5(화)까지 총 14일간 - 방법 : 온/오프라인 대면, 서면 인터뷰 - 내용 1) 시민아이디어 지원사업으로써 풀씨의 강점 2) 풀씨가 인터뷰 기관의 사업에 미치는 영향 3) 풀씨가 시민사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다양한 시민들의 활동 장려 및 사회혁신가 역량 강화

풀씨의 핵심 이해관계자는 활동 참여자 371팀(1,550명)이다. 우선 참여자(개인) 영역에서 참여자 확대 부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진입장벽을 낮춘만큼 기초정보 특성별로 참여자들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아이디어를 실행해나가는데 풀씨의 주요 특성들이 동기부여가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고, 풀씨 참여자들의 역량을 확인하기 위해 사회혁신가적 성향(Satar & Natasha, 2019) 측정과 관련 분야 관심, 활동 수준의 변화도 살펴보았다. 풀씨 참여자들의 사회혁신가 성향(Satar & Natasha, 2019)은 핵심적인 네 가지 속성인 사회문제에 대한 열정(Social Passion), 혁신성(Innovativeness), 주도성(Pro-activeness), 위험감수성향(Risk-taking)으로 정리하여 측정하였다. 더 나아가 사회혁신가 성향과 주요 성과 인식, 그리고 성과 인식과 풀씨 특성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 &lt;사회혁신가 부문별 성향 측정 문항&gt;

속성	문항
사회문제에 대한 열정	사회적 가치 창출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개인적 이익만이 아닌 타인의 이익도 고려하는 결정을 선호한다.
	사람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활동에 있어 야심차면서도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한다.
혁신성	위험하지 않다면 전형적이지 않은 새로운 활동을 시도하는 것을 선호한다.
	문제 해결에 있어 기존에 시도된 방식보다 이전에 없던 접근 방식을 선호한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남들이 하는 방식보다 나만의 방식을 선호한다.
	문제를 해결할 때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보다 독창적인 문제 해결 방식을 선호한다.
주도성	미래에 생길 수 있는 문제나 필요 또는 변화를 예상하여 행동한다.
	프로젝트를 미리 계획한다.
	다른 사람이 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먼저 나서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을 선호한다.
위험 감수 성향	잘 알지 모르는 영역에 도전하여 과감하게 행동하는 것을 좋아한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일에 많은 시간 또는 돈을 기꺼이 투자한다.
	위험이 수반된 상황에서도 대담하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 활동의 지속 및 확대

활동(팀 및 아이디어) 측면에서는 풀씨 참여 후 아이디어나 조직이 지속 또는 확장되고 있는지, 활동 결과물이 활용되고 있는지, 재단 내 다음 단계의 지원사업에 지원하였는지 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사회(풀씨 생태계)의 경우 재단과의 관계가 형성되었는지, 참여자들 간의 네트워크가 이뤄지고 있는지, 이를 넘어 문제 해결을 위한 자발적 그룹이 형성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일부 프로그램 평가(선호도, 추천 수준)를 포함하여 참여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형성 및 시민사회 지원 생태계 촉진

시민사회 지원 생태계 및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참여자들에게는 풀씨의 선호도 및 추천의향을 물었고, 시민사회 지원 단체 리더를 대상으로는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참여자들에게는 실제 문제 해결 기여 정도나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한 질문은 제외하였는데, 이는 풀씨가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을 위한 활동의 진입 단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2)

풀씨 참여자들은 사회문제에 관심을 두고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이미 사회혁신가로서의 자질이나 의지가 충만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회문제에의 관심과 해결 역량만으로는 일반적으로 '시민활동가'와 무엇이 다른지 이견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풀씨는 시민활동가로서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사업이면서도, 접근하기 힘든 난제에 주목하거나 소외된 문제를 풀어나가고자 하고, 보다 새로운 솔루션을 시도하는 데 거리낌이 없는 '사회혁신가'의 성향이 있는지 임팩트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성과지표나 임팩트 자체 지표로서 알아볼 필요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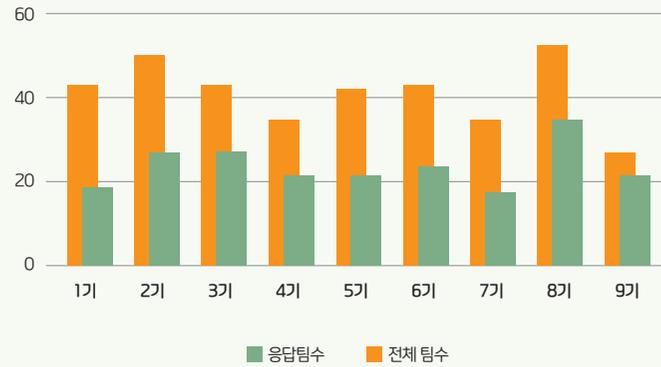
## &lt;임팩트 측정 핵심 지표 및 설문지 문항&gt;

구분	영역	핵심지표	설문지 문항	
기초 정보	참여자 정보		팀유형, 직종, 연령대, 고용형태, 활동분야, 활동지역 등	
풀씨를 통한 변화 측정	다양한 시민들의 활동 장려 및 사회혁신가 역량 강화	활동의 시작 촉진 및 동기부여	첫 활동 유무 풀씨는 사회/환경문제를 해결할 개인의 아이디어 활동의 시작을 촉진하였는가? 진입 사업 풀씨 지원사업이 숲과나눔의 첫 참여 프로그램이었습니까? 사업 특성별 중요도 풀씨 사업을 지원할 때 각 사항들이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동기부여되었습니까?)	
		환경·안전·보건 분야 사회혁신가 역량 강화	사회혁신가 성향 수준 사회문제에 대한 열정, 혁신성, 주도성, 위험감수 성향 환경·안전·보건 분야 관심 및 활동 수준 풀씨 활동을 통해 환경·안전·보건 분야의 다른 문제에 관심 갖게 되거나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활동의 실효성 확보	성과 인식 수준 풀씨는 귀하의 사회, 환경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구체적으로 각 부문에 대해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활동의 지속성	후속활동 유무 사업 참여 이후에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후속활동을 지속하고 계십니까? 후속활동 의향 앞으로 관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팀단위의 활동을 이어나갈 의향이 있습니까?	
	활동의 지속 및 확대	활동의 확대성	팀/단체 유지 수준	활동하였던 팀 또는 단체가 유지되고 있습니까?
			활동 확장 수준 인식	귀하의 활동 또는 팀이 지역(주변)에 잘 알려지고 더욱 확장되고 있습니까?
			활동 부문별 확장 수준	활동의 규모나 내용, 팀의 규모, 아이디어 발전, 이해관계자들의 협업 수준
			재단 내 단계별 지원사업 지원/참여 여부	풀씨 사업 이후 숲과나눔에 지원한 또 다른 프로그램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형성	네트워크 형성	결과물 활용 수준	활동의 결과물을 활동 이후에 공유 및 활용한 적이 있습니까?
			교류 경험 수준	풀씨 및 풀꽃 팀과 교류한 경험이 있다면 모두 선택해 주세요.
	프로그램 평가	선호도 조사		선호도 타 지원사업의 지원 금액과 수행 기간이 동일하면, 어떤 사업을 선택 하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추천 수준 조사		추천 경험 풀씨를 주변 사람에게 추천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추천 의향 풀씨를 앞으로 추천(공유, 알림)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풀씨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전체 대상자 371팀 중 203팀의 팀장이 응답하여 총 54.7%의 응답률을 보였다. 이 중 30팀(14.7%)은 중복 지원을 받은 팀으로 실제 응답 수는 173건이었다. 기수별로도 고른 응답률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기수별 응답자 비율>



## 임팩트 측정 결과

### 다양한 시민들의 활동 장려 및 사회혁신가 역량 강화

풀씨를 통해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해당 분야의 사회혁신가로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는지 확인해보았다.

#### 1. 참여자 확대 : 풀씨에는 누가 참여하는가

풀씨는 환경·안전·보건 분야 문제 해결 아이디어가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활동 단체가 아닌 새로운 시민 운동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임팩트 측정을 위해 풀씨 참여자 데이터 분석을 통해 다양한 시민들의 진입을 돕고자 했던 사업의 취지가 부합했는지 확인해 보았다.

풀씨는 1년에 2기수를 선발하며 기수당 최대 50팀을 선발할 수 있다. 1기부터 9기까지 풀씨에 지원한 팀은 총 1,640팀으로 이중 371팀이 선정되었으며, 평균 4.4:1의 경쟁률을 보였다. 팀 유형은 등록되지 않은 개인·모임(65%)이 등록된 영리·비영리단체(35%)보다 많았고, 지원비율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활동연령은 30대(34.2%) > 20대(29%) > 40대(25%) 순이었으며, 10대(3%)부터 5~60대(10%)까지 활동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활동지역은 서울과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과 그 외 지역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수를 거듭할수록 다양한 지역에서의 지원이 증가하여 현재는 17개 광역자치단체 모두에 활동팀이 존재한다. 주요 활동분야는 자원순환(36%) > 환경교육(20%) > 생태(19%) >

기후변화, 공동체, 안전보건(각 8%) 순으로 자원순환 분야에 대한 큰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 분야와 환경교육 분야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번 임팩트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에서는 이에 더해 직종과 성별을 추가로 조사하였다. 응답자의 직종은 시민사회 활동가(30%) > 학생(18%) > 전문/자유직(16%) 순으로 우리 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자 하는 주요 그룹을 확인할 수 있었고, 성별은 여성이 72%(125명)로 남성보다 2배 많았다.

#### 2. 활동의 시작 촉진 및 동기부여 : 풀씨는 문제해결 의지를 가진 개인의 아이디어 실천 활동을 촉진하였는가?

설문을 통해 과연 풀씨가 환경·안전·보건 분야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가진 다양한 시민들의 아이디어 실천 활동을 촉진하였는지 확인하였다. 응답자 중 70%는 풀씨 지원이 관심있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한 첫 활동<sup>3)</sup>이었다고 답하였다. 참여자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개인의 87%, 등록되지 않은 모임의 75%, 비영리기관의 68%, 영리기관의 38.4% 순으로 아이디어의 첫 실행을 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 전체 수로 보았을 때는 모임이, 그리고 유형별 응답 비율로 보았을 때에는 개인과 모임이 높았다. 즉, 풀씨는 그간 등록되지 않은 개인과 모임에게 주어지지 않던 도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소규모 모임과 개인의 아이디어 실천 활동을 촉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참여 팀 유형별 첫 아이디어 활동 유무>

구분	개인 (등록되지 않은 1인)	모임 (등록되지 않은 2인 이상)	비영리 기관 (비영리 단체, 임의 단체, 비영리 법인, 사회적기업 등)	영리 기관 (단체, 법인 기업 등)	총합
네	13(87%)	71(75%)	27(68%)	10(38.4%)	121
아니오	2(13%)	24(25%)	13(32%)	13(61.6%)	52
합계	15(9%)	95 (55%)	40(23%)	23(13%)	173

#### ⇒ 풀씨 사업의 어떤 특성이 참여하도록 동기부여했는가?

풀씨 사업의 어떤 특성이 지원하는 데 있어 동기부여하였는지 살펴본 결과, '행정의 간소화와 재단의 신뢰성' 부문이 높았으며, 그 외에도 '지원 자격 없음', '재지원 가능', '활동비(300만원) 규모', '단계별 프로그램 지원', '네트워킹', '활동기간(3개월)'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타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팀장(104명)들을 대상으로 비슷한 규모의 타 사업과 풀씨 중 어떤 사업을 선호하는지, 그리고 왜 선호하는지 묻은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중요한 요소로 드러났는데, 응답자 중 89%는 행정절차의 간편함

3)

활동의 조작적 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실제 시도한 행사, 캠페인 진행, 콘텐츠 제작, 제품 개발, 연구 진행 등. 중도포기도 포함

과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주요한 이유로 꼽았다.

<동기부여를 이끌어낸 주요 특성 (5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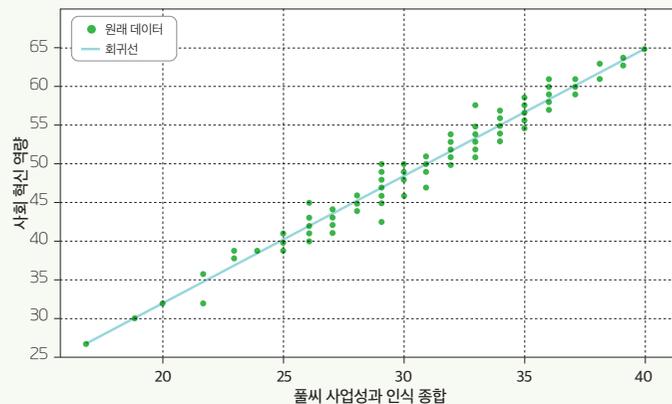
3. 사회혁신가 역량 강화 : (1) 참여자들의 사회혁신가 성향은 어떠한가?

풀씨 참여자들은 사회문제에 대한 열정 부문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4.43/5점) 혁신성(4.07/5점)과 주도성(4.01/5점)도 높은 수준으로 측정되었다. 한편, 위험감수성향은 보통으로(3.39/5점) 위험감수성향이 높지 않은 사회혁신가 타입으로 나타났다.

⇒ 풀씨와 참여자의 사회혁신가 성향은 어떤 상관성을 보이는가?

참여자 스스로 사회혁신가 성향을 지녔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풀씨 주요 성과<sup>4)</sup>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는데, 스스로 사회혁신가로서의 성향이 높다고 응답한 사람일수록 풀씨 성과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풀씨가 사회문제를 정의하고 문제 해결에 도전하려는 시민들의 사회혁신 역량을 발현케 하는 기회가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풀씨는 우리 사회의 사회혁신가를 발굴하고 사회혁신가 역량을 제고하는 인재 양성의 의미있는 출발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혁신역량과 사업성과 인식의 회귀선>



4) 주요 성과 : 풀씨 활동이 사회/환경문제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인식, 정서적 지지 및 동기부여, 네트워킹 기회, 프로젝트 완수 및 실행 역량 향상

3. 사회혁신가 역량 강화 : (2) 풀씨는 참여자들의 환경·안전·보건 분야에 대한 관심 및 활동 수준을 높이고 있는가?

응답자의 58%는 기존에 알던 환경·안전·보건 분야의 문제에 더욱 관심이 생겼다고 답하였고, 8%는 전혀 몰랐던 문제를 지각하게 되었다고 답하였다. 이를 넘어 새로 알게된 문제에 관한 활동을 직접 기획하거나 참여한 경우(22%)도 있었다. 관심을 갖게 된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74명이 구체적으로 응답하였는데, 관련 분야 내에서의 확장(ex.자원순환 분야,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에서 의류 폐기물로 확장)보다 분야 간 관심사의 확장(ex. 자원순환 분야에서 생물다양성 분야로의 확장)이 많았다. 참여자의 관심 주제가 점차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활동 수준을 살펴보면, 응답자들은 풀씨 활동 이전부터 캠페인 또는 행사(53%), 동아리, 지역 모임 활동(47%) 등에 적극 참여하고 있었다. 활동 이후 중요한 변화로는 관련분야 종사자가 증가하였다는 것이었다(이전 대비 13% 증가). 활동 이후 새롭게 시작한 활동 또는 실천으로는 응답자의 53%(93명)가 자원순환 부문의 실천을 하게 되었다고 답하였다.

<풀씨 활동 후 시작하게 된 실천/활동 응답 워드 클라우드>



4. 활동의 실효성 확보 : 풀씨는 참여자의 문제 해결 과정에 도움이 되었는가?

참여자들은 풀씨를 통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았다(성과 인식)고 답하였는데(4.2/5점), 재정적 지원(4.3/5점)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으며, 이와 함께 정서적 지지 및 동기부여(4.24/5점)와 풀씨 참여로 프로젝트 완수 및 실행 역량이 향상(4.14/5점)되었다고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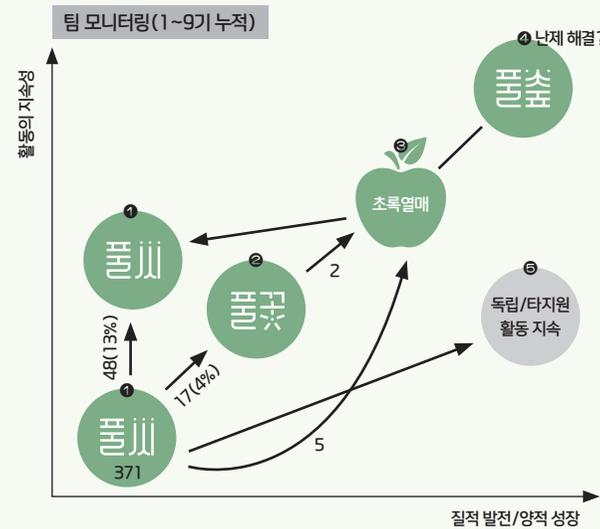
⇒ 참여자들의 성과 인식과 풀씨 사업의 주요 특성들은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참여자들의 성과 인식 수준과 풀씨의 주요 특성들은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프로젝트 완수 및 실행역량이 향상되었다는 응답자는 네트워킹 기회(0.517\*\*)와 정서적 지지



17%(30팀), 더 큰 규모인 초록열매로는 8%(14팀)가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 단계별 지원사업에 계속 도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장학·연구 지원사업과 활동가 양성 사업 등에도 2~5% 가량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풀씨가 재단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작이 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풀씨 참여자들의 단계별 사업 참여 비율>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형성

사업의 장기적 비전에 따라 우리 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연대/네트워크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1. 네트워킹 형성 : 풀씨 팀 간의 교류 수준은 어떠하며 자발적으로 그룹이 형성된 사례가 있는가?

먼저 재단 내 팀들과의 교류 경험을 확인해 보았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52%)은 활동 중 네트워크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교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더 적극적으로 다른 팀의 활동에 직접 참여한 경우는 11%(19팀), 다른 팀과의 활동 협업은 6%(10팀)로 나타났다. 활동 종료 후에는 교류 수준이 절반으로 줄었지만, 다른 팀의 활동에 피드백 또는 자문을 하는 방식으로의 교류는 오히려 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풀씨 활동 중/이후 이루어진 네트워킹 활동 양상>



자발적으로 그룹을 형성하거나 확대시킨 경우는 일부 온/오프라인으로 소규모 그룹이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온라인 커뮤니티(10%) > 오프라인 관심분야 모임(3%) > 오프라인 지역 모임(2%) 순으로 나타났다.

풀씨가 시민사회 및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

지난 5년간 진행된 풀씨는 시민사회 생태계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어떤 역할로 자리매김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시민사회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중 재단과 풀씨에 대한 이해가 높은 9곳의 관계자를 섭외하여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참여자>

- 녹색연합 윤정숙 상임대표 / 다음세대재단 방대욱 대표 / 대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공정옥 센터장 / 사단법인 시민 신권화정 사무처장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지회 이영주 팀장 /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김시원 편집장 / (재)중앙자원봉사센터 김선용 팀장 / 전 서울시 NPO지원센터 김유리 팀장 / 화성시 환경재단 박예린 과장

1. 풀씨(+숲과나눔 지원사업) 사업의 강점은 무엇인가?

#개인지원  
#시민감수성  
#신타기반

인터뷰 참여자 대다수는 풀씨의 가장 큰 강점으로 '개인에게 자원을 배분하여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또한 이 요소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빙을 없애는 등 행정을 간소화하고, 성공과 실패 유무에 상관없이 아이디어 실험 그 자체를 지원한다는 점을 중요한 점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시민과 재단이 서로 신뢰가 높아야 가능한 것이다. 한 참여자는 이를 또 다른 말로 시민감수성 혹은 시민접근성이 높다고 표현하였다. 그 외에도 다수의 응답자는 시민들의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한 세부적인 사업 설계, 시민들과의 소통 방식,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유연함 등을 강점으로 꼽기도 하였다. 소수 의견으로 환경·안전·보건 분야에 특화된 재단이라는 점도 신뢰성을 주는 요소라고 답하였다.

또한 복수의 응답자는 풀씨는 처음부터 단계별 시민 아이디어 지원사업으로 설립된 만큼 전체 프로그램 틀이 가진 강점이 크다고 응답하였다. 그 외 1년에 100팀을 선발, 지원하고 이 사업을 5년간 변함없는 규모와 운영방식으로 유지한 것은 재단의 역량과 조직 문화, 업무 방식 및 철학 등도 주요하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답하였다.

## 2. 풀씨가 해당 기관의 사업에 미친 영향이 있는가?

#아이디어뱅크  
#파트너정신  
#참여자확대

여러 기관에서 내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과정에서 풀씨의 운영 성과, 내용, 방식 등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환경부문 신규 배분사업 기획 시 (재)숲과나눔의 단계별 '시민아이디어 지원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어떤 부문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아이디어를 실행하고, 어느 정도의 요구가 있는지 등을 참고하였다고 답하였다. 실제 기획된 배분사업을 (재)숲과나눔과 함께 진행하게 되면서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의 발굴과 지원, 새로운 단체의 발굴과 육성 기회를 만들기 위해 규모와 역량 중심의 선발보다 임의단체를 포함 신규단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게 되었다고 답하였다.

중앙자원봉사센터는 환경 분야의 새로운 자원봉사 프로그램 기획 시 풀씨를 통해 만들어진 다양한 아이디어와 참여자의 특성을 살펴본 것이 기획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하였으며, 실제 프로그램 운영에 풀씨를 수행한 단체와 협업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대구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는 운영방식을 참고하여 지원기관과의 직접 만남의 기회를 늘려, 관리자보다 파트너로 상호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사)시민은 '비영리 스타트업'을 지원할 때 선정된 모든 사업에 성과를 내야 한다는 강박감을 내려놓을 수 있었는데, 풀

씨 정신이 도움이 되었다고 답하였다.

## 3. 풀씨는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시민역량강화  
#배분사업롤모델  
#문제아카이빙

우선 앞의 질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양한 기관의 사업 기획과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풀씨가 지원사업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 또한 응답자의 대다수는 풀씨가 변화를 위해 새롭게 시도하는 사람들의 페이스 메이커가 되어 사회의 시민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비슷한 소규모 모임 지원사업을 운영해 본 응답자 중에는 참여자들이 상상만 하던 아이디어가 선정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아 확신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된다고 답하였다.

그 외에도 풀씨가 기관 뿐 아니라 기업 등 다양한 자원을 통해 배분사업을 기획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곳들의 롤모델이자 레퍼런스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도 답하였다. 실제 대부분의 지원 프로그램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아이디어를 지원한다"고 말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실제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데 이는 시민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풀씨의 성과는 신뢰를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줌으로써 지원사업의 경계를 넓히고(Boundary Spanning), 향후 지원사업과 운영 방식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고도 볼 수 있다. 이는 현재 민간 지원사업이 위축된 상황에서 더욱 부각된다고 답하였다.

또한 기존 대부분의 지원사업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던 반면, 풀씨는 전국의 다양한 지역으로 배분됨으로써 지역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지역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 답하기도 하였다.

한편 풀씨의 성과가 타 사업과 연계되거나 확장될 수 있도록 주제별, 지역별, 유형별 맵핑과 아카이빙, 다양한 시민과의 접점을 가진 기관과의 매칭 및 네트워킹을 통해 사업의 영향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